

개화기 복식의 변천

朴 聖 實

I. 서 론	1. 왕실복식
II. 개화기 복식 변천의 요인	2. 남성복식
1. 시대적 배경	3. 여성복식
2. 변천요인	IV. 결 론
III. 개화기 복식의 특징	

I. 서 론

개화에 대하여 兪吉濬은 □西遊見聞□에서 인류의 역사 발전단계를 미개화, 반개화, 개화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개화란 인간의 천사만물의 지극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역’이라 하고 당시 개화된 나라는 서양제국으로 인식하고 있다.¹⁾ 이는 선진 외국문물을 받아들임으로서 재래의 것과는 다른 차원이 높은 단계의 문화에 도달함을 개화로 보았다. 또한 그는 제16편 衣服飲食及宮室制度에서 “衣冠은 其制度의 變改함이 亦煩數흔 者니” 라하고 간편한 서양복과 우리옷을 비교하면서 廣袖와 長幅, 大冠 등은 불편하며 다만 舊俗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복식사 연구에서 개화기는 최초의 개항시기에 맞추어 강화도수호조약이 체결된 1876년부터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1910년까지로 시대구분 한다.²⁾ 한편 개항 이전 개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1860년대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복식의 가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의식의 개화를 통해 복식의 변화가 시작되는 1870년대를 복식사적 개화기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역사학계에서는 1876-1910으로 구분하되 1905년 11월 乙巳條約을 경계로 전후 두단계로

1) 兪吉濬(1856~1914), □西遊見聞□, 유길준전서(일조각, 1971), pp.395~396. 유길준은 1883년 7월 閔泳鏞洪英植徐光範 등이 미국 報聘使로 파견되어 도미할 때 이들의 수행원으로 동행하였다.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공부를 위해 약 1년간 체류하였다.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2)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80), pp.613~614
金美子, □韓國의 服飾□-개화기의 복식-(韓國文化財保護協會, 1982), p.407.

보는 시각도 있다.³⁾ 약 반세기에 걸친 시기이나 역사적인 변화가 극대화된 상황이었으므로 개화기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게 발표된바 있다.⁴⁾ 그 이외에도 복식사 연구에서 이 시기의 복식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보완하면서 당시 유물자료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II. 개화기 복식 변천의 요인

1. 시대적 배경

국제적인 격동기에 12세의 어린 나이로 등극한 고종(재위 1863-1907)은 초반은 翼宗妃 조대비의 수렴청정과 生父인 흥선대원군의 섭정으로 親政에 간여하지 않았다. 당시 조선은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 등 조선과의 통상무역을 빌미로 프랑스와 미국 등 외세침입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고종의 親政이 시작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취했던 강력한 쇄국정책과 달리 개방여론과 함께 1868년 明治維新으로 구미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의 압력으로 인해⁵⁾ 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결국 1876년 강화도에서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이어서 제물포, 부산, 원산항이 개항되었다. 여기에 신구세력의 갈등이 표면화되었으며 수구세력은 개화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에 힘입어 1882년 임오군란을, 개화세력은 일본세력을 이용하여 고종 21년(1884) 甲申政變을 일으키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복식제도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1894년 甲午更張 때에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획기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으며 의복 제도의 간소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1895년 을미년에도 급진적인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명성왕후가 시해되는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단발령 시행은 백성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 이듬해 對日감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었을 때 俄館播遷으로 친러내각을 성립하여 1897년 국호를 대한, 연호를 광무라 하여 고종이 황제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황제국으로서의 복식제도가 새로 마련되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에

3) 정창열, 「韓國史學史의 研究」 -韓末의 歷史認識-(을유문화사, 1995), p.192

4) 손경자, 「韓國의 服飾 - 개화기의 여복」-□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김미자, 「韓國의 服飾 - 개화기의 복식(남복)」-□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김희정, 「개화기식물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황지아, 「개화기 한국 복식의 변천」 (숙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윤정, 「개화기 복식의 변천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대학원, 1995)

5) 北村哲郎 著, 李子淵 譯 「日本服飾史」(경춘사, 1999), p.202

明治 4년에는 40여 명의 정부요인이 2년간 간 구미시찰에 동원되었다. 또한 젊은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고 수많은 외국인을 초빙하여 정부 각 부처에 배치하여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朝鮮에 대한 야심을 구체화하였으며 1910년 韓日合邦으로 大韓帝國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문화의 유입과 개화사상에 힘입어 정책적인 변화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신교육의 필요성, 신분계급의 타파 등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2. 변천요인

개화기복식의 변천요인 분석에 대하여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다. 장운정은 개화사상, 계몽운동, 국가정책, 근대교육의 보급으로 대별하였으며⁶⁾ 이밖에 衣料의 다양화와 재봉틀의 등장도 변천요인의 일부분으로 작용하였다.

17세기 이후로 접어들면서 성리학적 가치체계가 강한 도전을 받고 있었으며 代案으로 실학사상과 같은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하게 되었고 18세기 후반이래 실학자들에 의한 새로운 안목의 역사가 연구되었다.⁷⁾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은 실생활에 기반을 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이었으므로 실학사상은 복식이 지나칠 정도의 형식적이며 의례적인 용도보다는 실용성과 편리성, 합리성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개화사상의 전개로 나타난 반응은 새로운 종교와 외래문화의 도입이다. 구교인 천주교와 신교인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1885년대부터였다.⁸⁾ 천주교의 보급으로 가시적인 복식의 변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남녀평등주의 사고를 가지게 되었고 특히 여성의 의식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 기독교의 전파는 여성의식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교육기회의 확대를 가져와 여성복식의 개량을 주도하였다. 기독교 전도부인들의 옷차림을 모방하여 짧았던 저고리를 길게 하고⁹⁾ 길었던 치마를 짧게 하면서 뒷트임을 막아 통치마로 개량하였다. 전래되는 1880-1910년대 초 저고리 유품들은 자신의 가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것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제시된 새로운 방안이었다.

형태뿐만 아니라 服色은 짙은 색을, 옷감은 국내 布木이나 麻紵를 권장하여 상하 동색의 치마 저고리 등 복색과 옷감에 대한 개량안도 제시되었다. 그밖에도 외국문물을 먼저 접할 수 있었던 외국 사절단, 외교관 등의 수행원과 그들의 부인, 왕족, 유학생들은 일반인보다 일찍 우리 의복을 개량하여 입거나 양복을 착용하였다.

일반 서민에 변화는 동학사상의 전파와 언론의 보급, 여성단체의 결성 등을 들 수 있다. 동학의 인간존중사상과 평등사상은 복장에 있어서 신분계급을 타파하여 왕, 관리, 일반 모두 두루마기[周衣]를 착용하게 되었고¹⁰⁾, 양반가 부인뿐만 아니라 기생들도 두루마기와 마고자를 입게 되었다.

6) 주 4참조

7) 조광외, □한국사학사의 연구□ -조선후기의 역사인식(을유문화사, 1995), p.132

8)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638.

9) 1906년 제국신문 5월 31일 논설부분 참조

10) □高宗實錄□ 高宗 32년 3월 29일 참조

□독립신문□이나 □가정잡지□ 등의 언론매체는 여성교육의 필요성과 기능적인 의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여성들의 활발한 단체활동은 내외법을 폐지시켰고 역시 여성교육의 확대와 의복 개량을 강조하였다.¹¹⁾ 특히 복식에 있어서는 내외법 철폐의 일환으로 長衣 착용을 폐지시키고, 여성의복을 개량하여 저고리의 길이를 길게 하고 통치마, 주름 잡은 치마를 착용하였다.

1907년 6월 19일 제국신문 논설에는 치마는 도랑치마로 하되 외로 입고 바로 입는 폐단이 없이 만들어 걸음 걸을 때 치마 자락이 버러지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여성의 복식제도의 개량과 관련된 기사를 독립신문(1896-1899), 황성신문(1900-1910), 매일신문(1910-1919) 내용을 종합하면 백색금지 15건, 장의 등 쓰개류 폐지 9건, 형태변형 9건에 이른다.¹²⁾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도한 의복제도의 개혁은 대신들의 반대상소에도 불구하고 특히 官服과 私服의 변화가 시행되었다. 1884년 윤5월 24일 갑신외척개혁에서는 時服으로 착용하던 廣袖의 紅團領을 窄袖의 黑團領으로 간소화하였고, 1894년 2월 갑오경장 때에는 進宮時 通常服으로 흑색의 두루마기에 답호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다음해 3월 을미개혁에서는 公私 예복으로 답호는 없애고 두루마기만 입게 하여 관복이 최대한 간소화되었다. 1895년 11월 15일에는 단발령과 함께 의복제도는 외국제를 채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양복을 착용이 시도되었다. 1899년 8월에는 외교관의 복장을 양복화하고 문관의 소례복, 즉 착수의 흑단령에 品帶만을 가하여 대례복으로 입도록 하였다. 1900년 4월 17일 발표한 칙령에서는 문관의 대례복, 소례복, 상복을 구미식 관복으로 제정하였다.

근대적 교육의 보급으로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으며 학생복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학생복은 일반인 및 여성 복식의 변화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 숙명여중고의 전신인 명신여학교의 교복은 자주빛 보네트모자와 간호부복 유사한 원피스형태로서 획기적인 시도였다. 이는 4년만에 폐지되고 치마저고리로 대신하였다.¹³⁾ 특히 기독교계 선교사들에 의한 여성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인해 기능적으로 편리한 의복 개량안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1886년 설립된 이화학당 초창기 상하 同色 한복은 서양의 단색 원피스에서 착안한 것으로 훗날 동색 배색의 한복 유행의 효시가 되었다. 또한 내외법 철폐의 일환으로 장옷이 폐지되면서 대신 검정 우산을 쓰게 되었다.¹⁴⁾ 1913년 7월 6일 매일신보에는 검정우산을 들고 한복을 입고 있는 부녀자들의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교복으로 통치마를 지정하여 여성 복식 개량에 일조하였으며 양장 교복 출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¹⁵⁾ 그 후 양장화된 교복은 일반 복식의 양장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밖에 사립여학교인 順成여학교(1898-1903)에서는 개교 초기 재봉틀 사용법을 교수하였

11) 「제국신문」 1907년 6월 19일 논설부분 참조

12) 남윤숙, 「한국현대여성복식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85

13) 최은희, □한국개화여성열전□ (정음사, 1985), p.110

14) 「제국신문」 1898년 10월 12일 참조

15) 1908년 개교한 경기여고의 통치마 흰저고리 차림의 사진이 전해진다.

고¹⁶⁾ 숙명의 경우 창설 때부터 다량의 재봉틀을 구비하였고 1942년경에는 30여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¹⁷⁾고 한다. 재봉틀의 등장은 여성교육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자금자족으로 충당하였던 기본적인 衣料보다 다양한 외국직물을 접하게 되었다. 1906년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사용하던 국내의 衣料品들은 견, 면, 저마 등 30여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청국산이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¹⁸⁾ 이는 1882년 체결한 「朝·清商民水陸貿易章程」의 영향으로 보인다.¹⁹⁾ 이외에 영국산과 일본산 면직물도 수입되었는데 일본제 면직이 처음 조선에 나타난 것은 1890년이었으며 점차 영국산 면직을 압도하게 되었다.²⁰⁾ 이상과 같이 일부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나 최초의 재봉틀을 이용한 기계화재봉교육과 근대화된 기계직 직물의 보급은 의생활에 혁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Ⅲ. 개화기 복식의 변화

1. 왕실복식

(1) 王服

왕의 官服은 祭服인 冕旒冠·冕服, 朝服인 遠遊冠·絳紗袍, 常服인 翼善冠·袞龍袍, 戎服인 玉鷲笠·軍服으로 대별된다. 조선 전반기에는 이들 관복류는 명의 관복제를 2등체강원칙에 따라 친왕복제도로 九旒冕과 九章服을 사여받아 착용하였으나 명나라 패망 이후에는 大明會典에 의거하여 만들어 착용하였다. 高宗 34년(1897)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고종이 皇帝위에 오르면서 大明會典에 따라 황제와 동격인 十二旒冕과 十二章服을 적용, 시행하였다.²¹⁾ 이 때 제정한 복식은 純宗皇帝까지 착용하였으며 이를 御用한 사진자료가 남아있으며 구장복의 실물은 玄衣와 中單만이 전하고 있다.²²⁾

면복은 袞服이라고도 하며 宗廟와 社稷에 祭禮, 嘉禮, 凶禮시 착용하였다. 면복은 冕旒冠, 圭, 玄衣, 中單, 裳, 大帶, 蔽膝, 綬, 佩玉, 赤襪, 赤舄으로 구성되며 왕세자, 왕세손은 왕의 제도와 차이를 두었다. 國朝五禮儀序例에 따르면 구류면류관은 前後 9류 총 18류의 구슬이 달리며 每旒에는 주, 백, 창, 황, 흑색 순으로 꿰는데 앞은 8촌 5푼, 뒤는 9촌 5푼으로 한다. 玄衣 어깨에는 神

16) 「황성신문」 1899년 2월 24일자 사설

17) 口숙명 50년사口(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p.191

18) 高承濟, 口韓國經營史研究口(한국능률협회, 1985), p.186

19) 譚永盛, 「조선말기 청국상인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대학원, 1976), p.50

20) 남윤숙, 전개서, p.43

21) 口增補文獻備考口禮考 26, 卷 79 章服 1 참조

22) 중요민속자료 제66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치를 의미하는 龍, 등에는 鎮定을 의미하는 五嶽, 소매 외측에는 번영을 상징하는 火, 문체가 화려한 華蟲, 효를 나타내는 예기인 宗彝를 3개씩 그린다. 상과 폐슬에는 陰事라 하여 수를 놓았는데 화려한 藻, 養民을 표현한 粉米, 결단의 의미인 黼, 背惡向善의 黻을 등 국왕으로서의 지켜야 할 상징적인 문장을 장식하였다²³⁾. 곤복을 祭服으로 착용할 경우에는 方心曲領을 부착하여 예를 갖추었다. 왕세자는 8류면 3채옥, 용과 산을 제외한 7장복, 왕세손은 7류면 3채옥, 보 불을 제외한 5장복으로 구분하였다. 황제의 면복제도는 12류면에 홍과 녹색이 추가된 7채옥, 日, 月, 星辰이 추가된 12장복으로 양어깨와 등에 시문하였다. 황태자는 9류면 9장복으로 하였다.²⁴⁾

왕의 朝服으로는 遠遊冠과 絳紗袍이며 황제 조복은 원유관 대신 12봉의 通天冠으로 바뀌었다. 황제 강사포는 국왕 강사포와 형태는 같으나 中單²⁵⁾ 깃에 黻文²⁶⁾ 13개를 付金하였다.²⁷⁾ 강사포 실물은 남아있지 않고 고종의 어진만 전해지고 있다. 조복에는 장문이 없고 부속품은 면복과 동일하다.

常服은 翼善冠과 홍색 袞袍로 착용되어 오다가 황제용 黃龍袍를 착용하게 되었다. 황룡포에는 양어깨와 가슴 등에 용문을 금사로 수놓은 둥근형 補를 달았는데 왕은 五爪龍紋, 왕세자는 홍색 곤룡포에 사조룡으로 하였다.²⁸⁾

익선관 後部 양각 형태는 매미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翼蟬冠으로 표기되기도 한다.²⁹⁾ 중요 민속자료 제58호로 지정된 雲紋紗 황룡포가 세종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곤복은 옥로립, 동다리, 협수로 일습을 이루며 補를 부착한 철종의 御眞이 남아있다. 용복은 철릭으로서 유물자료는 없으나 正祖가 수원 행차시 袞龍帖裡를 착용한 기록이 있다.³⁰⁾ 곤룡철릭은 철종어진에서 보이듯이 龍補를 가식한 철릭을 말한다.

(2) 왕비복

왕비의 대례복인 법복도 면복과 마찬가지로 국초부터 명나라로부터 사여받았는데 大衫·霞帔였으며 朝賀儀나 冊妃 등 가례시와 길례, 흉례 시 착용하였다. 명나라 패망 이후에는 국속제인 大紅緞 翟衣를 착용하였으며 대한제국시대에는 명나라 황후의 적의제를 적용하였다. 적의는 적관(대

23) □國朝五禮儀序例□ 卷1, 吉禮, 祭服圖說

24) □增補文獻備考□ 卷79, 예고 26 章服

25) 강사포 안에 입는 직령포.

26) '亞' 자형의 문양. 12장문 중 하나.

27) 각주 24참조

28) 각주 24 참조

29)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1627년)

□왕세자가례도감의궤□(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1651년)

30) □원행음묘정리의궤□(1795) 권1 筵說 윤2월 초9일

수), 玉圭, 적의, 中單, 蔽膝, 霞帔, 裳, 佩玉, 帶, 綬, 青襪, 青烏으로 구성된다. 국속제의 적의는 가슴과 등에 金繡를 놓은 오조룡 보를 달고 앞면에 圓翟을 좌우에 각각 7개씩 수놓고, 뒷면에는 각각 9개씩 수놓아 총 51개를 달도록 하였다. 이는 □국조속오례의보서례□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³¹⁾. 국속제 시행시기 초반에는 세자빈은 아청색으로 하여 구분하였고 세자빈의 원적문은 36개로 하였으나³²⁾ 1882년 임오가례(순종 첫번째 가례)에 세자빈의 가례발기와 □국조속오례의보서례□에는 원적 51개로 기록되어 있다³³⁾. 따라서 왕비와 세자빈은 적의색으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속제 적의 의차에 金線緞을 사용한 기록을 근거로 적의 바탕에 錦織이 시문된 직금단에 원적을 加飾한 원삼형태의 국속적의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³⁴⁾

고종의 황제 즉위 후에는 명나라의 제도를 따라 深靑色적의로 바뀌었는데 翟紋을 12단에 나누어 수놓고 그 사이에 작은 小輪化를 배치하였다. 머리에는 翟冠 대신 大首를 착용하였다. 광무원년에 시행된 제도는 □增補文獻備考□ 예고에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마련된 大禮儀軌에는 황후용 적의에 관한 언급이 없다.³⁵⁾ 당시 명성황후는 시해된 상태였으며 황후는 공석이였다. 순종비(윤비)가 착용하였던 12등 적의는 세종대학교박물관(중요민속자료 제 54호, 55호), 영왕비의 9등 적의는 덕수궁 유물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밖에 12등 적의본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중요민속자료 67호)

상복용 예복으로 기록에 보이는 노의와 장삼이 있으나 전래되는 유물이 없다. 다만 청연군주의 노의로 보이는 출토유물이 전래되고 있다³⁶⁾. 그밖에 圓衫은 대한제국 시대에 착용하였던 황후용은 황원삼으로 황색 길에 다홍색과 남색의 끝동과 백한삼을 달았다(중요민속자료 제49호). 영왕비의 홍원삼(중요민속자료 제48호)도 색의 차이를 보일뿐 동일한 제도이다.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종의 후궁이었던 광화당의 자적원삼도 세종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중요민속자료 제 52호)

2. 남성복식

(1) 百官服

개화기 관복의 변천은 고종 21년(1884) 甲申衣制改革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에 관복뿐만 아니라 私服의 개정제령도 반포되었다. 광수의 홍단령은 착수의 흑단령으로 고치고 문무관의 관직과 품

31) □國朝續五禮儀補序例□ 吉禮 卷之1, 王妃禮服制度

32) 朴聖實, 「翟衣制度의 變遷研究」(□服飾□ 9, 한국복식학회, 1985), pp.39~40

33) 「궁중가례물품목록」(임오천만세동궁마마가례시)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34) 김연자, 「조선왕조 왕세자빈 적의연구」(단국대학교대학원, 2002) 참조

35) □大禮儀軌□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 1897)

36)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를 조사하여 복원 발표한 바 있다. 2001년, KOSCO 국제의상전, (사)한국복식학회

계에 따라 흉배를 달아 입게 하였다³⁷⁾. 사복 역시 도포·중치막 등과 같은 넓은 소매[廣袖] 옷은 행동하기에 불편하므로 좁은 소매[窄袖]의 착수의, 전복, 사대로 바꾸어 착용하도록 하였다.³⁸⁾ 이때 착수의는 두루마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수 차례에 걸쳐 반대상소가 있었으나 강행되었다.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 때에는 관복은 착수의 착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착수의 착용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복에 있어서는 두루마기 위에 戰服를 덧입어 士庶人과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³⁹⁾. 같은 해 12월에는 관복이 더욱 간소화되어 대례복은 흑단령으로 하고 진궁 시 통상 예복은 흑색 두루마기에 답호를 착용토록 하였으며 단령에는 紗帽, 靴子를 착용하도록 하였다⁴⁰⁾.

고종 32년(1895) 3월 을미개혁에서는 공사예복에 답호도 없애고 두루마기만을 착용하게 하여⁴¹⁾ 관복과 사복 모두 두루마기를 착용하게 되었다. 또한 官民이 다같이 흑색 두루마기를 착용하라 하였는데 이는 관민을 一視하여 衣制상으로 구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또한 4월 9일에는 칙령 제 78호로 육군복장규칙을 반포하였다.⁴²⁾ 8월 10일에는 궁내부에서 大臣과 朝臣 이하의 服章式을 칙령으로 반포하였는데 朝服과 祭服은 전과 같이 하고 대례복은 흑단령, 사모, 품대, 화자로 慶節과 문안, 禮接시 착용하고 소례복은 黑盤領 착수포, 사모, 속대, 화자로 진현 시 착용하되 경우에 따라 대례복으로 사용토록 하였다. 통상복은 周衣, 裾濶, 絲帶로 규정하였다.⁴³⁾

같은 해 11월 태양력을 사용하고 연호를 建陽이라 하였으며 斷髮令이 내려졌다. 그 내용은 망건을 폐지하고 의복제도는 이국의 것을 채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단발령과 함께 양복의 착용이 시작되었다. 당시 단발령의 충격은 심각하여 일반 백성을 비롯하여 유림의 거두인 崔益鉉은 頭加斷髮不斷이라 외쳤다고 한다.⁴⁴⁾

1899년 8월에는 出疆使臣의 복식을 외국 실정을 참작하여 개정하도록 하고 국내의 문관은 소례복, 즉 착수인 흑단령을 착용토록 하였으며 여기에 품대를 더하여 대례복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례와 하례 시에는 전과같이 흑단령과 조·제복을 착용토록 지시하였다.⁴⁵⁾ 여기서 출강 사신은 외국에 나가는 사신을 말하며 이들의 복장은 양복으로 개정토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신라 진덕왕 2년(648년) 唐의 공복인 단령을 수용한 이래 천수백년간 습용되어온 전통이 개혁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조복과 제복만은 先祖의 遺制로서 국말까지 착용되었으나 구성적인 면에

37) □高宗實錄□ 卷 21, 高宗 21년 윤5월 24일.

38) □高宗實錄□ 卷 21 高宗 21년 윤 5월 25일

39) □高宗實錄□ 卷 32, 高宗 31년 6월 28일. □高宗時代史□ 高宗 31년 6월 29일

40) □高宗實錄□ 卷 32, 高宗 32년 12월.

41) □高宗實錄□ 卷 32, 高宗 32년 3월 29일.

42) □高宗實錄□ 高宗 32년 4월 9일 개국 504년. □高宗時代史□ 高宗 32년 4월 9일

43) □高宗實錄□ 高宗 32년 8월 10일

44) 柳喜卿, □한국복식사연구□(이화여대출판부, 1985), pp.618 ~ 620.

45) □高宗時代史□ 卷 4 光武 3년 8월 3일, p.948

서는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조복은 梁冠, 赤綃衣, 蔽膝, 中單, 裳, 後綬, 大帶, 角帶, 笏, 靴로 일습을 갖추며 양관과 후수, 홀, 각대 등으로 신분을 구별한다. 이는 국초에 마련된 경국대전(제 46)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중단의 의색이 청색으로 바뀌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이 시기에 해당하는 조복 일습 중에는 裳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짧게 만들어 적초의에 고정시켜 놓은 것이 있다. 외관상으로는 상을 착용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적초의 도련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상을 만들거나 착용하는데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성법이다.

이듬해 광무 4년(1900)에 반포된 문관복장규칙 및 문관대례복제식에 의하여 대례복, 소례복, 상복을 양복으로 제정하였다.⁴⁷⁾ 대례복의 구성은 연미복형이다. 소례복에는 연미복과 프록코트(frock coat)의 두 종류가 있으며 官內進見時, 각국 使臣召接時에 착용하였다. 상복은 仕進時, 執務時에 착용하며 구성은 중절모와 연미복에 비해 뒤가 더 짧은 상의와 조끼를 입는다.

(2) 軍服

군복에 洋服이 도입되는 것은 1895년 이후이며 그 전까지는 재래 군복을 착용하였다. 재래 군복은 戰笠, 동다리, 戰服, 纏帶 木靴로 구성되어 있다. 동다리의 모양은 두루마기와 비슷하며 주로 주홍색 길에 붉은 소매 등의 화려한 배색을 하였다. 길과 소매의 색이 다르다 하여 동다리라 불린다. 중요민속자료 제 216호인 윤용구(1853-1936) 동다리는 전복이 함께 바느질되어 있어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는 조복의 경우와 같이 간소화된 구성법도 이시기 재봉방법의 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군복의 변천은 軍制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군제의 근대화는 선진국들의 군제수용에 따르게 된다. 당시 우리의 환경은 근대화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용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열강들의 압력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말 군제를 4단계로 구분하기도 한다.⁴⁸⁾ 육군본부에서 발간된 陸軍服制史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단계는 일본국군영향기로 1895-1897, 제2단계는 러시아군제영향기로 1897-1900, 제3단계는 자주적 군제영향기로 1900-1907, 제4단계는 일본군제영향기로 1907-1909로 구분하였다. 1895년 고종 32년 4월에는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육군복장규칙이 반포되면서 훈련대 보병과 장교복이 양복으로 제정되고 같은 해 9월에는 일반 군인에게도 적용되었다. 제 1단계는 正裝은 儀式이나 제사 등 大禮時에 착용하며 군모[帽]⁴⁹⁾, 외투⁵⁰⁾, 상의(衣)⁵¹⁾, 肩章, 칼[刀], 바지

46) 譯註 國經大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47) 柳喜卿, 앞책, pp.624~625.

48) 陸軍服制史(육군본부, 1980), p.75

49)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은 투구형. 흑색 용으로 만들고 정상에 화살촉 모양의 금색 장식을 부착하고 턱끈은 검은 가죽으로 하였으며 정면 표장은 무궁화 가지와 배꽃으로 장식하였다.

[袴]⁵²⁾, 靴 등으로 구성된다. 제 2단계의 군복장은 1897년 5월 15일 제정된 육군복장규칙에 따라 왔으며 제 1단계에 2년간 시행된 복장을 禮衣와 常衣로 구분하였으며 1단계에 비해 변화를 보였다. 예장의 禮帽는 前面에 챙이 나오고 모자의 윗부분이 안으로 들어갔다. 소재는 흑색용이며 홍색 용으로 梨花形을 수놓아 부착하였다. 禮衣는 합임으로 흑색의 광직 緣을 좌우솔기와 도련에 들렀다. 단추는 검은 실로 매듭을 만들어 달았는데 무궁화 모양을 좌우에 5개씩 부착하였다. 소매부분은 紅絨緣을 소매길이까지 표시하고 여기에 人字形 금선을 대장은 9, 부장은 8, 참장은 7, 정령은 6, 부령은 5, 참령은 4, 정위는 3, 부위는 2, 참위는 1줄로 하고 인자형 위에는 금사로 權花章을 수놓았다. 常衣는 공사를 막론하고 평상시에 착용하였다.

常帽의 형식과 복제는 예모와 동일하나 모자 덮개 주위선, 관등 표시선, 계급표시 횡선, 모표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앞 챙은 반원형의 검정색 가죽으로 하였으며 하사관용, 병졸용의 구분을 두었다. 常衣의 재질은 흑라사로 합임이며 깃에는 관등 표식이 없으며 소매에만 예의와 같이 황색수장을 부착하였다. 단추 5개를 무궁화 모양으로 만들어 의령 밑에서 아래로 부착하고 黑絲 광직 緣을 좌우 솔기와 도련에 들렀다. 소매 장식은 예의와 동일하지만 黑絲織으로 표시한다. 하사관이나 병졸의 수장은 홍색띠를 부착하여 계급을 구분하였다. 제 3단계의 군복장은 군모의 변화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의식거행시에는 깃털을 장식하였다.

제복의 경우는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1900년 7월에 陸軍將卒服裝制式에 의해 군복이 개정되었는데 전 제도와와의 차이점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禮衣는 흑색사로 교임형으로서 깃과 단추의 모양을 달리하였다. 도금한 무궁화 모양의 단추를 좌우에 7개씩 부착하였으며 목부분의 의령을 연결하는 좌우 襟部에는 홍색 용선을 직선으로 합봉하였다. 常衣는 합임으로, 도금한 무궁화 문양을 부착하였다. 뒷중심 솔기선 옆에는 흑색 용단을 부착하고 단추를 3개씩 부착하였다. 의령 상, 하단에 홍색선을 1줄씩 부착하였고, 소매에는 흑색선을 人字形으로 부착하였는데 그 개수는 1897년 禮衣의 것과 같았다. 상의는 일자형이며 7개의 도금 단추를 달아 주었다. 의령에는 은별을 부착하였는데 장관 3, 영관 2, 위관은 1개를 달았다. 제 4 단계의 군복장은 1907년 8월 군대가 해산됨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나 1909년까지 군부는 존재하였다. 일본군 군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07년 10월에 반포된 陸軍服裝制式에 의하면 예장의 예모는 흑색의 용으로 만들었으며 1897년 제정된 예모와 동일하였으나 장교의 兵科定色을 제정하여 모테에 적용하였다. 모자에 달린 귀단추의 문양이 무궁화에서 이화로 바뀌었다. 하단부의 색은 계급에 따라 달리하였는데 장관과

50) 외투는 흑색 용으로 만든 스텐 칼라가 달린 긴 외투로서 앞면에는 은색 단추가 2줄로 5개씩 달려있다. 허리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소매에는 수장(袖章)을 부착하여 관등을 표시하였다. 장관은 3, 영관 2, 위관은 1개씩의 은별을 달아준다.

51) 여밈은 합임으로 은색 단추 5개로 고정한다. 재질은 흑라사(黑羅紗)이며 관등은 깃에 달린 은별로 구분하였다. 將官은 3개, 領官 2개, 尉官 1개를 부착한다. 계급은 소매에 부착한 금띠와 태극단추로 구분하였다.

52) 재질은 흑라사이며 옆 봉합선 장식은 붉은색 용으로, 장관은 3줄, 영관 및 위관은 1줄로 하였다.

보병은 홍색, 기병은 녹색, 포병은 황색, 공병은 자색, 군의는 유록색, 軍司는 청색으로 하였다. 예의는 스탠드 칼라형의 교임으로 도금한 무궁화 모양의 단추가 좌우에 각각 7개씩 부착되어 있다. 뒷중심에는 단추 3개를 부착하였다. 의령과 袖口에는 各兵科定色에 의한 色絨緣을 장식하였으며 의령장을 달아 계급을 표시하였다. 소매장식은 색용연 위에 인자형 선을 둘러 선의 수로써 계급을 나타내었다. 상모 재질은 흑융을 사용하였으며 하반부는 홍색융으로 하였다. 常衣는 다갈색 융지의 함임으로 도금 무문원형 단추를 5개 부착하고 가슴 좌우와 복부 좌우에 주머니를 달았다. 가슴 주머니 뚜껑에는 도금한 소형단추를 1개 부착하였다. 의령 상, 하단에 홍사선을 1조씩 부착하였으며 의령장은 은사 繡飾으로 별 모양이다. 뒷중심에는 흑색 융단을 부착하고 단추 3개를 부착하였다. 소매장식은 소매끝 앞쪽에 도금한 소형 이화문 단추를 옆으로 직급에 따라 부착하였다. 바지의 재질도 다갈색 융지로 하며 좌우에 縫章을 장식하였다. 장교는 홍색의 융선을 1조 부착하되 승마하는 자는 短袴를 착용하였다. 하사병 및 무관생도의 옷도 그 제식과 봉장은 장교와 동일하다.⁵³⁾

(3) 개화파 인사의 복식

우리 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金玉均, 徐光範, 俞吉濬, 洪英植, 尹致昊 등과 같은 개화파인사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1881년을 전후하여 신사유람단 또는 수신사절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양복을 접하게 되었다. 이들이 처음 사입은 양복은 썩코트(sack coat)로 18세기 유럽에서 스포츠용으로 만들어져 미국에서 크게 유행한 형태이다. 깃은 턱밑에 바짝 붙고 여밈은 가슴부분에서 무릎 위까지 벌어졌다. 셔츠는 칼라가 둥근 크라이앙셔츠이고 넥타이는 보우타이처럼 생긴 크라브트였다. 1883년 한미친선 도모와 통상 협의를 위해 11명의 인사가 파견되었는데 이들 역시 미국각지와 유럽을 돌아보고 귀국할 때 양복을 한 벌씩 구입하여 돌아왔다. 그 당시의 사진자료가 남아있다.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에 따라 일본에 가게된 초빙대사들은 수행원들과 함께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고 떠났으며, 1906년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단발과 양복착용은 더욱 확대되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파견된 李相高, 李儁, 李璋鍾 등도 하이칼라(high collar)에 타이(tie)를 맨 양복을 착용하였고 1910년에는 최신유행의 프록코트(frock coat)가 일반에게 유행할 정도로 양복착용이 급속히 확산되었다.⁵⁴⁾

(4) 일반 서민복

이시기의 복식은 유물자료나 사진자료로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 서민 남성의 의복은 개

53) □陸軍服制史□ (육군본부, 1980) 제 2절 구한말기 참조, pp.75~93.

54)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출판부, 1980), pp.625~627 참조

화기에 들면서 그 형태는 간소화되고 의복의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상의로는 저고리 위에 덧입는 마고자가 등장하고, 여러 袍類를 두루마기로 통일하였다. 두루마기는 양복에서의 외투와 같은 역할을 하였지만 사계절 내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착용하였고 더욱 간소화하여 고름 대신 단추를 달아 입기도 하였다. 조끼는 1910년대 양복의 조끼를 본떠 만들어 저고리 위에 덧입은 것으로 배자를 대신하였다. 앞길에 주머니를 달아 생활에 편리하도록 만든 한복과 양복을 절충한 의복이다.

바지는 별다른 변화 없이 계절에 따라 소재를 달리해 입었다. 內衣로는 속고의를 입었는데 후에 팬츠로 대체되어 갔다.

주머니는 필요한 물건을 넣어 허리띠에 찻는데 담배주머니, 안경집 등이 있었고 조끼를 입게 되면서 조끼에 달린 주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자 주머니의 착용이 줄어들었다. 신은 갓신과 짚신, 미투리, 나막신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混織草鞋가 유행하기도 하였는데 짚과 왕골로 곱게 삼은 이 미투리는 남자용 신 중 일등품이었다. 머리는 단발령과 함께 망건의 사용이 폐지된 宕巾을 쓰고 그 위에 黑笠을 썼다. 촌에서 일할 때는 비를 피하기 위해 삿갓을 사용하였으며 喪人은 方笠도 착용하였다.

(5) 남학생복

1900년대 이전에는 한복 차림으로 저고리와 바지 위에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망건에 갓을 쓰거나 땅은 머리에 댕기를 늘였다. 단발령 이후에는 깎은 머리에 모자를 쓰기도 하였다. 신은 버선을 신고 짚신, 미투리, 흑혜, 나막신 등의 鞋를 신었다. 양복 교복은 1920년대에 들어서야 많은 학교에서 착용하였다.

3. 여성복식

여성복식은 남성복식과는 달리 국가 정책에 의한 강제성 있는 큰 변화는 없었으나 상류사회의 여성, 유학생, 개화파 인사의 부인들은 양장을 착용한데 반해, 양가집 부녀자와 일반 여성들은 대부분 기존의 풍습을 유지함으로써 한복과 양장의 이중구조를 형성하였다.

(1) 궁중여인복

1897년 대한제국 성립 이후 황후의 상복은 황원삼, 황태자비는 홍원삼, 공주·옹주는 예복으로 녹원삼을 착용하여 衣色을 구분하였다. 그밖에도 활옷·당의에 대란·스란치마를 함께 입었다. 초록 원삼은 花紋으로 장식하고 스란단은 화문 또는 鳳凰紋으로 장식하였다. 순종황제비 윤황후의 당

의와 高宗의 외동딸 덕혜옹주의 당의가 전해지고 있으며 옹주의 생모 양귀인의 원삼 착용모습 사진이 전해지고 있다.

尙宮은 민간의 혼례 대신 관례를 치뤄 주었는데 어머머리를 하고 예복으로 원삼을 입었다. 관례시 이외에도 왕실의 국혼에는 원삼차림으로 성장하였다.⁵⁵⁾ 예복 밑에 착용하는 기본복식은 동일하였으나 옷감의 우열과 색상으로 어느 정도의 신분의 구분이 가능하였다. 상의로는 속저고리, 저고리, 회장 저고리 당의를 입고 치마 속에 단속곳, 바지, 속곳 등을 갖추어 입었다. 나인들의 복색은 입궁 시기에 따라 달랐는데 입궁 후 얼마되지 않은 아기나인은 남치마 보라저고리, 짧은 나인은 초록저고리 남치마, 노상궁들은 남치마와 옥색 저고리 차림이었으며 남치마는 궁녀들의 대표적인 복장이었다고 한다.⁵⁶⁾ 당의는 당저고리라고도 하며 저고리 삼작에는 당의가 일습으로 포함되었다. 조선왕실의 존재가 미약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왕실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그들의 복장에서 느껴진다.

(2) 신여성의 복식

기독교의 전파로 개화사상을 접하게 된 傳導婦人들은 한복을 간편하게 개량하여 입었다. 짧아지지만 하던 저고리의 길이를 길게 하고, 길기만 하던 치마를 짧게 하였다. 또한 뒤트임을 막아 통치마를 만들었다. 이러한 한복 개량과 더불어 양장의 착용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양장을 한 여성은 윤고려(윤치오부인)로 1899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나⁵⁷⁾ 윤치오의 부인은 이숙경으로 1907년 부인과 사별하였고 윤고려와는 1908년 3월 재혼하였다. 이숙경은 윤치오를 따라 도일하여 함께 귀국한 것은 1906년이였다.⁵⁸⁾ 이숙경의 양장차림은 1968년 여성동아 2월호에 소개되고 있으며 1900년경으로 발표한바 있다. 윤고려는 1891년 생으로 1899년은 8세의 어린 소녀였다.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895년의 단발령 이후 양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고종황비인 嚴妃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미국 볼티모어로 유학을 가서 의학을 전공하고 우리 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된 박에스더는 1900년 귀국 당시 검소한 양장을 입고 귀국하였고 1900년 미국 오하이오 웨스리안 대학을 졸업한 하란사도 양장을 하고 귀국하였다. 이는 여성 최초의 미국학사였다⁵⁹⁾.

이와 같이 일부 상류계층 여성을 비롯하여 유학과 계층이나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었던 개화여성들에 의해 양장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당시 일반 서민 여성의 양복 착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다. 당시의 사진자료들이 전해지고 있다.

55) 김용숙, □朝鮮朝宮中風俗研究□ (일지사, 1987)

56) 김명길, □樂善齋周邊□ (중앙일보사, 1977), pp.148 ~ 149.

57) 유희경, □한국 복식사 연구□(이화여대 출판부, 1980), p.640.

58) 남윤숙, 전개서, p.70

59) 최은희, □한국 개화여성열전□(정음사, 1985), p.99.

(3) 일반 서민복

이시기의 복식은 전래되는 유물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진자료도 상당부분 남아있다. 개화기에 들면서 옷의 모양이나 색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던 풍습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수입비단이나 고급직물을 이용하여 자유스럽게 선택해 입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한편 그 길이에 있어서는 전도부인이 저고리를 길게 입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반 부녀자들의 저고리는 점점 더 짧아져갔다. 저고리의 길이는 20cm안팎으로 저고리와 치마 사이로 젓가슴이 드러났기 때문에 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허리띠로 묶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활동을 하는 일부 여성들의 치마는 활동에 편리하도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반 부녀자들의 치마에는 별 변화가 없었다. 한편 복식제도 개량 안에 의해 통치마가 제시되고 1907년 6월 19일자 제국신문 논설에서도 통치마 착용을 권장하여 192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통치마 스타일이 확산되었다. 겉옷으로는 남성과 같이 마고자나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머리모양은 조선 후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처녀들은 땀머리였고 부녀자들은 쪽진머리와 엷은머리(주로 이북지방)를 하였다. 그러나 최활란의 경우처럼 1907년 일본에서 귀국 시 팜프도어라는 도오넛형의 머리가 신여성들이 의해 소개되기도 하였다⁶⁰⁾.

그밖에 머리쓰개는 조바위가 유행됨에 따라 아얌은 차츰 자취를 감추었고 방한용 남바위도 널리 착용하였다. 상기한 바와같이 1898년 10월 12일자 제국신문에서는 장옷의 대용품으로 우산의 사용을 건의하였고 1905년 이후에 장의 폐지 논의는 더욱 활발해져 대용품으로 검정우산이 사용되었다. 개화초기 당시 신발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짚신과 미투리를 착용하였고 비오는 날이면 나막신을 신었다. 경우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맑은날 나막신을 신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서 확인된다.

(4) 여학생복

상류 계층의 여성들은 양장을 도입하여 소개하는 데 그쳤을 뿐 일반 서민들의 복식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반면 새로운 문물을 빨리 접할 수 있으면서 수적으로 많은 여학생 집단은 일반 서민 여성복의 개량화에 있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화학당의 학생들은 1890년대에는 좁은 소매가 달린 짧은 저고리 아래 허리띠를 매고 허리보다 약간 위에 치마를 입었다. 1900년대에는 큰 학생에 한하여 흰저고리에 옥색치마를 입었는데 길이는 발까지 왔다. 당시의 사진자료에서 확인된다.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어깨허리가 고안된 이후인 1910년 이후이다.

경기여고의 전신인 한성고등학교는 1910년 이전에 흰색 저고리와 검정색 통치마를 입게 하였는

60) 유희경, 앞의 책, pp.643~644.

데 이 시기에 여성의 치마가 발목위로 올라온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송의 여학교는 무색 저고리에 대체로 흰 치마를 입었고 나이 많은 학생들은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었으며 흰 저고리의 끝둥과 옷고름의 색으로 유행색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숙명 여학교는 1907년까지 한복을 착용하다가 최초로 커다란 모자가 특이한 모양의 양장 교복을 제정하였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여학교는 저고리에 통치마를 착용하였다.

IV. 결 론

복식의 변천은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인과 국내외 정세까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복식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개화기는 국내외 정세에 더욱 민감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변 정세 변화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복식 변화의 폭도 컸던 때라 하겠다.

개화기 복식의 변천은 크게 전통복식의 변화와 양복의 착용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남성 복식과 여성 복식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성 복식의 변천은 강제성을 가지는 국가적 차원의 의복제도 개혁에 의한 관복의 급격한 변화로 일어났다. 시복인 廣袖衣 흥단령이 窄袖衣 흑단령으로 간소화되고, 다시 흑색의 두루마기에 襟護를 착용하도록 하였다가 답호마저 생략하고 두루마기만 입도록 하여 관복이 최대한 간소화되기도 하였다. 조복과 제복은 전통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이중에서는 훈상을 작게 만들어 적초의에 부착하는 실용적인 구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구군복도 전복을 동다리에 같이 바느질하여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디자인이 확인되었다. 또한 관복의 변천으로 私服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1884년 도포·창의 등의 廣袖袍가 착수의 두루마기로 변하였고, 1894년 신분계급의 철폐시도로 관민 차별 없이 모두 사복으로 두루마기를 착용하게 되었다. 한편 1899년 외교관의 복식을 시작으로 그 다음해 문관복도 양복화 하였다. 군복 또한 서양복의 군복제도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양복의 착용은 개화파 인사들에 의해 주장되어 제도적 지시에 따라 변천이 용이한 제복, 즉 관복·학생복 등에 적용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 이것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양복의 효시이다.

대한제국시대의 황제 및 황후의 관복제도는 명나라가 멸망 후 3세기 경과한 시기였음에도 大明會典에 따라 제도적으로 수용하였다.

여성 복식에서 궁중 예복 및 상류층의 복식은 개화기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평상복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독교의 보급으로 여성 의식구조의 변화, 여성 교육기관의 설립,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져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장옷이나 쓰개치마의 길이가 짧아지다가 대체물로 양산 등이

사용되었으나 차츰 폐지되었다. 또한 저고리의 길이는 길어지고, 치마는 짧아지면서 통치마나 주름 잡은 치마와 같은 개량 한복이 착용되었다. 이러한 개량복의 보급에는 기독교 전도부인과 여학생의 의복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외래 문화를 먼저 접할 수 있었던 고관 부인, 외교관 부인, 유학생들의 양장 착용과 양장화된 교복 착용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양장이 널리 전파되었다. 이는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점차 확산되는 동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유물 및 사진을 통해 설명하기로 한다.)